

할렐루야!

이상기온과 무더위에도 우리의 선한목자 되신 주님안에서 안부 드립니다.

텍사스 날씨도 낮에는 110 도가 넘는 날씨이지만, 어제부터 오전에는 선선한 날씨가 시작되었습니다.



난민영어학교도 2 주 방학을 마치고 이번주부터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난민들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무슬림들이 들어오고 있지만 전도하는 것은 그리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난민 사역을 하면서 경험한바로 하나님의 때가 되시면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영혼구원과 부흥을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얼마전 교회를 나왔던 아프간 가정의 요셉형제는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더 이상 나가지 않겠다고 저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실망하지 않고 그 가정을 자주 방문하고 대화하며, 난민들은 작은 일에도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힘든 삶을 살아왔던 것을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가정을 방문해서 즐겁게 대화하며, 지난주 생일과 또 자동차를 산 것을 축하해주고, 또 여러가지 일들로 칭찬을 하면서, 다음주에 교회 가자고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는데 그러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인간은 이성적이기 전에 먼저 근본적인 인간의 자존감에 대한 이해와, 미국 상황에서의 난민 사역의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에서 난민사역을 하면서 효과적인 사역을 위한 전문적인 Teamwork 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믿음의 아프간 형제 부부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안타깝게 생각했던 Online 사역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H 형제는 컴퓨터를 잘하고 Online 사역을 하고 싶어했으나 혼자 힘으로는 시작하기가 어려워 누군가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주님께서 텍사스에서 Outline Mission 교회 개척의 비전과, 또 미국 전역을 향한 Online Mission 을 위하여 각자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이젠 연합해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귀한 만남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즘 자주 만나서 의논하고 준비하며 중보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더 죠 마켓은 미국에서는 동네 마켓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동네에 있는 이 마켓을 갔는데요, Korean food 떡국, 불고기, 김밥을 파는 것을 보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가격도 \$3.99 비싸지 않아요. 이제는 한국음식을 사러 달러스까지 1 시간 이상 갈 필요없이 10 분이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한국음식을 미국마켓에서 자연스럽게 살 수 있다는 기쁨도 있지만, 한국 문화의 영향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는 어느 나라에 가 있든지 모국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 점점 복음 전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다시한번 복음 앞에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축복기도

1.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신부의 삶을 위해
2. 난민 M 들이 복음을 듣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3. Fort Worth 의 아프간교회개척, 미전역에 Parci Online Ministry (페르시아어권 대상 온라인 선교사역)
4. H 형제 가정과 사역을 위해, 요셉, 미라, 파티마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도록
5. 저의 건강을 지켜 주셔서 감사
6. 물심양면으로 협력하고 중보 하는 교회와 개인에게 약속하신 영권 인권 물권을 부여 주시도록